

간호행정세미나



— 1968. 1. 22~1. 27 —

임상간호 분과위원회 주최

전국 각지의 병원 간호과장들을 위한 간호행정 “세미나” 지난 1월 22일부터 27일까지 1주일 동안에 걸쳐 국립의료원 간호학교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본협회 임상간호분과위원회 주최로 보건사회부와 내무부의 후원을 얻어 개최된 이 간호행정 “세미나”에는 33명의 간호 과장들이 참석하여 총 24시간의 강의와 8시간의 구룹토의 시간을 통해 간호행정에서 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다루었다.

이 세미나에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유훈교수의 “일반행정”과 숭실대학의 안병욱교수의 “가치관의 변동”이 이채로워 흥미를 끌었으며 홍신영회장의 협회활동에 대한 강의는 협회인식을 새롭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또 내무부재정과 기획조사계장 권순복씨의 “병원예산 편성과 집행”, 강윤희씨의 “병실관리”, 이승희씨의 “간호과장의 직무”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김옥길 이화대학 총장의 여성

교양강좌를 비롯한 이영복씨의 “간호원의 윤리 도덕”, 그리고 보사부간호사업과 간호조산제장 함석윤씨의 “문서작성과 기안방법”에 대한 강의도 있었다.

그밖에 “가족계획과 간호사업”에 대한 가족계획협회의 강준상박사 강의와 “학교교육과 임상실무와의 상호관계”를 이귀향씨가 강의했고, 운수복상임이사는 “의료업자신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오는 5월에 있을 신고사무에 대비했다.

특히 총무처인사과장 문기열씨는 “조직관리”에 대해 강의를 해주었고 재미있는 이 알렉산더신부가 방한일정을 틈내어 미국에 있는 우리 회원들의 문제점들을 들어 얘기해 주기도 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끝마쳤다.

이번 이 “세미나”기간중 서울시지부 간호원장회의 초청으로 지방간호과장들과 저녁을 함께 나누는가 하면 수문사에서 기증받은 금일봉으로는 간단한 기념품을 나누어 가지는 등 화기애애한 가운데 그 막을 내렸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 기간중 8시간에 걸쳐 토의한 그룹토의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입원중에 발생하는 사고문제

① 예방

ㄱ) 환자와 병실을 자주 순회하여 사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을 제거할 것.

ㄴ) 인수 인계시에는 정확히 확인 후 철저히 할 것. (구두, 기록)

ㄷ) 전직원 상호간의 협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② 사고 발생후

ㄱ) 즉시 보고하여 사후처리를 신속히 하도록 협조할 것.

ㄴ) 병원이나 환자, 간호원 등이 받는 피해가 적도록 협조할 것.

2. 병실간호 기준

병실 환경정리, 환자청결, 중환자 간호, 신생아실 관리등 최저로 비볼 수 있는 환자간호와 기록에 대해 많은 토의를 했으며 각병원에서 할 수 있는 간호기준을 세우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시간관계로 질병상태로 구분한 환자간호 기준을 연구하여 속히 제정해 줄 것을 본협회에 건의키로 하였다.

3. 제한된 시설이나 물자를 이용

어떻게 좀더 효율적으로 간호업무 수행할 것인가?

의료기구가 부족할 때

① 머리를 잘 써서 사용하며 순환이 잘 되도록 항상 준비해 둘 것.

② 소모품은 경제적으로 사용하여 판타를 잘하고 직원들의 불평항의를 막을 것.

③ 폐품을 이용하도록 머리를 쓸 것.

④ 물건의 인계인수를 잘하여 분실을 막을 것.

4. 인사 취급에 있어서의 문제점

① 인사취급은 간호과장의 권한으로 할 것.

② 간호원을 새로 채용할 시는 전직에서의 근무상태를 알아보고 채용된 후는 1년 이상 근무토록 할 것.

③ 유능했던 간호원에게는 상을 줄 것.

④ 임시휴가시는 대기 근무하도록 하거나 P.R.N.이나 독간호원을 채용하는 방법을 쓸 것.

한편 이번 “세미나”를 마친 후 참가자들의 만족, 불만으로 표시한 평가표를 종합해 보면

1) 이번 “세미나”의 목적, 준비, 장소 등은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2) “세미나” 개최 제정은 너무 주워서 불만스러웠다는 사람이 몇명 있었으나 대체로 만족이었고

3) 특강은 전체적으로 모두 대단히 만족한다고 했다.

4) Group 토의는 제목이나 방법에 있어서 불만스러웠다가 많고 member들의 발언 상태도 불만스러웠다가 많았다.

5) “세미나의” 인원수, 시간 등은

적당하다가 태반이고 group의 인원 수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끝으로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외부 강사를 초청한 특강이 아주 만족스러웠고 group 토의에 있어서 주제가 막연하고 leader의 준비가 부족한 것이 불만이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 장소관계상 이리저리 옮겨다니는데 불편을 느낀 점과 식사문제 등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런 “세미나”가 있을 때마다 모두가 절실히 느끼는 것은 하루 속히 우리 회관을 마련해서 그 안에서 자유로히 진행시킬 수 있어야겠다는 점이다.

간호행정 세미나에

참석하고

<대전충남의료원> 김 정 숙

간호행정 seminar를 개최하게 한 사회의 욕구는 실무자들의 호응으로 전국 각처에 계신 서른세분의 간호과장님이 등록하신 것으로 보아 큰 수확이라 보겠습니다.

特別이 “인사문제”와 “看護의 質的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과장 자신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새로운 知識과 기술을 연마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시간을 환자간호에 봉사할 수 있는냐는 문제는 모든 여건 특히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한 한국의 實情에서는 간호과장의 지대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고는 도저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정된 강의 시간중 두분 강사의 결강은 큰 손실이라고 아쉬웠으며 구토티의가 산만하고 의견을 잘 간추리지 못한채서

기가 說明한 전은 앞으로의 seminar에 반복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가슴에 와닿는 여러 의부강사님들의 힘찬 강의와 내부여러분의 강의도 제한된 인원만 듣는 것이 못내 안타까웁고 이것을 나의 병원 수간호원 더 나아가서는 staff nurse들에게도 들려줘서 우리가 지향하는 보다 효율적인 간호를 어떻게 또한 어떤 기준에서 할 것인가 하는 점을 풀어주고 일깨워 줌으로써 보다 나은 자질 향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해 줬으며 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면관계상 자세한 내용을 열거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이같이 다양한 내용의 교수과목들로 짜여진 행정 seminar를 간호학교가 병설된 병원 간호과장은

<세미나>

물론이고 종합병원 간호원장들이 의 목적으로 참가하여 本人 自身の 자질 향상과 후배양성의 기본점을 세우도록 기여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

병원의 궁극 目的이 어디까지나 환자간호란 점을 인식하고 모든 것을 환자 위주로 처리하고 사고할 수 있는 모든 nurse가 되도록 분발하여 날로 발전하는 간호학의 새로운 지식과 인류에의 봉사정신 즉 간호 윤리 등을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인가는 앞으로

의 과제가 되리라 봅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열심히 나오셔서 강의해 주신 여러 감사님들과 열심히 다음으로 경청하신 여러 간호과장들의 모습에서 앞으로 간호사업 발전에 기대가 될 것을 믿어도 좋으리라 여겨졌습니다.

본 seminar를 준비하신 이귀향 선생님 이하 준비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 선배회원들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한 소감을 적었습니다.

◆ 병원관리학회 창립 ◆

대한병원관리학회 창립총회가 지난 2월 16일 엘베써더 호텔 15층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전국 각병원의 관리직에 종사하는 회원들이 병원경영의 합리화를 모색하고자 이룩한 이 관리학회에서는 이번 창립총회에서 임원선출과 68년도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15명의 이사진에 우리 이영복씨와 이송희씨가 선출되었음은 우리 간호원들이 병원 관리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날 첫학술대회가 열려“병원경영과 독립제산제도”, “재무 및 세무관계”, “회계제도 및 원가계산관계” “관리개선 관계” “간호를 중심으로 한 병동편성”, “진료평가 관계” 등 11종목에 걸친 다채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간호를 중심으로 한 병동편성”에 대한 panel discussion에서는 이영복, 이송희, 한운복 씨의 연재가 흥미로웠으며 박명자, 양마리,계롤수녀, 김제자, 유숙현 4명의 연구발표도 감명을 받았다.

이날 우리 연사들과 발표자의 명단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다음호에 실기로 하겠다.

- ① 병실편성과 간호문제 : 이영복
- ② 병실편성과 nursing unit : 이송희
- ③ 종합병원의 병실편성 : 한운복
- ④ 간호업무내용의 조사 : 박명자
- ⑤ 병원사회에 있어서의 인간관계 : 양마리,계롤수녀
- ⑥ 중앙공급실의 개선 : 김제자
- ⑦ 병동근무 간호원의 보행거리 조사 : 유숙현